

기획예산처, 배터리 순환경제의 미래를 보다.

-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자원 순환 인프라 점검 및 재활용기업 애로사항 청취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5.28일(목) 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사용후 배터리 기술개발 및 실증화 현장을 시찰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금일 현장방문은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99차 일정으로, 배터리 순환경제와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환경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5.28(목), 10:20 ~ 15:30 /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에코프로씨엔지(경북 포항)
- 시설현황: 자원순환연구센터, 종합정보지원센터, 기업집적단지
- 참석자 :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기후부) 자원순환국장,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부단장
(유관기관) 한국환경공단, 포항시 관계자 등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사용후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은 두 가지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탄소중립 아젠다를 충실히 지원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과 함께 “둘째는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블랙매스(리튬, 코발트 등 함유)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광산'이자 국가 공급망 안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대표기업인 에코프로씨엔지를 방문하여, 재활용 공정을 둘러보고, 배터리 재활용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배터리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7 예산안 편성시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배터리 순환경제를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예산실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의영 (044-214-2570)
		담당자	사무관	이윤혁 (kkuljam@korea.kr)

